

# 日政下の 經濟的 遺産과 美軍政期の 初期條件에 대한 考察

## 車 輓 權\*

### <目 次>

- I. 머릿말
- II. 經濟構造의 從屬性과 跛行性
- III. 抑壓된 인플레이션壓力的 增大
- IV. 南北分斷과 經濟基盤의 分裂
- V. 맺는말

### I. 머릿말

1945年 8月 15日에 日本이 太平洋戰爭에서 敗하여 聯合國에 降伏하게 되자 北緯38度線以南地域에서 日本軍의 占領과 植民地統治를 終熄시키기 위하여 韓國에 進駐한 美軍은 1948年 8月 15日에 우리나라 政府가 수립될 때까지 3年間에 걸쳐 軍政을 實施하였다.

美軍政은 韓國을 解放 獨立시킨다는 1943年 「카이로宣言」의 公約을 履行하기 위하여 日本이 署名한 降伏文書의 條項을 實行하는 한편 韓國人의 人權 및 宗教上의 權利를 保護하는 데 目的<sup>(1)</sup>을 두었으나 軍政期間 중 政治的 社會的 混亂에 더하여 生産活動의 全面的 萎縮으로 심각한 物資不足과 暴發的인 惡性 인플레이션이 進行되어 經濟的으로도 심각한 混亂을 겪게 되었다.

이에 對處하여 美軍政當局은 4億달러가 넘는 GARIOA援助<sup>(2)</sup>를 통해 食糧, 肥料, 衣類, 燃料 등의 緊急救護에 힘쓰는 한편 自由市場經濟를 指向한다는 當初의 方針을 바꾸어 米穀의 收集·配給制를 實施하고 産業生産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각종 對策을 강구하였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이 論文은 當初『韓國稅制史』(財務部刊) 第3章 「美軍政期の 稅制—混亂期の 經濟와 財政」을 위하여 作成한 草稿의 內容을 全面 補完, 改編한 것임을 밝히둔다.

(1) 美軍政布告 第1號(1945年 9月 7日), 「朝鮮住民에게 布告함」, 前文.

(2) GARIOA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는 美國의 占領地區行政救護援助로서 陸軍省豫算에서 供與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美軍政下(1945. 9~1948. 8)에 總 409,394千달러가 援助되었다.

즉 農業生産을 늘리기 위하여 小作料의 引下, 新韓公司의 設立에 의한 日人所有土地(東洋拓殖株式會社所有 包含)의 管理, 小作農에 대한 農地(日人所有)分配와 같은 措置가 취하여졌다. 또 工業生産의 增大를 위하여 日人所有工場 등 歸屬財産의 管理와 拂下, 工業用燃料 및 電力의 緊急供給<sup>(3)</sup>, 機關車導入에 의한 輸送力強化, 技術人力增大와 教育水準提高를 목적으로 하는 教育制度의 改善 등이 강구되었다. 그밖에 惡性 인플레이션의 收拾을 위하여 歲入增大를 目的으로 稅法을 改正하고 歲出規模를 壓縮하여 財政赤字幅을 줄이도록 努力하였다. 그러나 歲入調達이 크게 不振하였던 反面에 米穀收集補助<sup>(4)</sup>, 治安維持費, 教育費 등 歲出增加要因이 늘어나 이를 追加的인 通貨增發로 充當하는 惡循環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다.

이같이 美軍政期에 4億달러를 넘는 民需物資 및 計劃事業援助<sup>(5)</sup>를 받고, 部分的이나 經濟制度의 改善이 이루어졌음에도 不拘하고 經濟的 混亂이 계속되었던 것은 美軍政이 韓國事情에 어두웠고 經驗이 不足하였던 탓도 있었으나 日政下에 形成된 經濟的 遺産과 南北 分斷으로 인한 單一經濟의 分割에 그 主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經濟構造의 對日從屬性과 跛行性, 戰時統制經濟下에서 累積된 인플레이션壓力과 敗戰直前의 攪亂的인 通貨增發, 그리고 政治的 分斷에 따른 單一經濟의 分割과 地域分業의 斷切, 北韓住民의 大舉南下와 海外同胞의 歸還에 따른 南韓人口의 急增이 그러한 要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論文은 美軍政期에 우리 經濟를 심한 混亂 속에 몰아 넣은 日政下에 形成된 經濟的 遺産과 單一經濟의 分割에 따른 初期條件을 整理하고 檢討하여 보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 II. 經濟構造의 從屬性과 跛行性

日政下에 우리 經濟는 日本經濟의 必要에 따라 그 活動과 方向이 規定되었다. 日本은 韓國을 併呑한 後 當初 韓半島를 「日本の 食糧基地로 삼고, 日本本土의 原料生産地 및 日本工業製品의 市場으로 育成시킨다」는 基本方針<sup>(6)</sup>을 세우고 우리 經濟로 하여금 日本에 1次產品을 供給하는 대신에 日本工產品의 消費市場으로서의 役割을 強要하였다. 그리하여 韓半島에 있어서의 日本의 產業政策은 米穀單作型 產業構造를 指向하는 農業開發에 總集中되었

(3) 美軍政當局은 重油發電船(2萬kw)을 釜山에 設置하여 1948年 3月부터 發電을 개시하였다.

(4) 1947年 中間까지 中央豫算歲出의 15~20%를 占하고 주로 通貨增發로 充當되었다.

(5) 援助總額의 7.6%인 3千1百萬달러에 달하였다.

(6) 趙璣濬, 「韓國近代經濟發達史」, 『韓國文化史體系 II(政治經濟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5年, p. 898.

다. 그러나 1931년에 日本이 中國大陸侵略을 위한 序戰으로서 滿州事變을 도발하고 日本本土에서 不況打開을 위하여 統制經濟로 移行하게 되자 大陸兵站基地로서의 韓半島의 役割을 重視하고 또 日本本土의 遊休資本의 對韓進出을 도모하기 위해 韓半島에 있어서도 農工併進策이 推進되었다. 더우기 日本이 1941년에 中國大陸에 대한 侵略을 本格的으로 擴大시키게 되자 戰爭遂行을 目的으로 韓半島에서도 戰時物資生産을 위하여 食糧增産과 産金振興 그리고 重工業의 建設이 촉진되고 1941年末에 戰爭이 太平洋戰爭으로 擴大되자 人力·物資·資本의 全面的 動員에 拍車가 加해졌다.

이같이 日本이 韓半島에서 展開한 開發政策은 日本經濟의 必要性에 따라 策定되고 韓半島自體의 經濟發展은 거의 考慮되지 않았으나<sup>(7)</sup> 이는 日本統治下에서 韓半島의 經濟가 日本經濟에 隸屬經濟로서 有機的으로 統合되고 있었던 데에서 생겨 난 必然的인 所産이었다. 즉 日本이 韓國을 併合한 後 米穀單作型 産業政策을 推進한 것은 日本의 工業化를 推進하는 데 있어서 韓半島로부터 값싼 米穀을 大量 導入하여 低賃金を 維持하기 위한 絶對的 要請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며 1931年 滿州事變以後 韓半島에서 工業化를 推進한 것도 大陸兵站基地로서의 韓半島의 役割을 重視한 것과 日本本土內의 不況打開 및 遊休資本에 대한 投資機會의 創出에 그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日政下에 우리 經濟에 强要된 隸屬性을 몇가지 具體的 資料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米穀生産과 對日輸出

日本은 韓半島를 食糧基地로 育成한다는 基本方針에 따라 1920년부터 3회에 걸쳐 産米増殖計劃<sup>(8)</sup>을 實施하였다. 農地改良과 品種改良 등 營農改善을 主軸으로 하였던 産米増殖計劃

〈表 1〉 米穀生産과 對日輸出

期 間 (5年平均)	生 産 量 (1)	指 數	對日輸出 (2)	指 數	比 重 (2)/(1)	1人當消費量 (韓半島內)
1912~16	12,030	100.0	1,056	100.0	8.8(%)	0.7188(石)
1922~26	14,501	120.5	4,342	411.2	29.9	0.5871
1932~36	17,002	141.3	8,757	829.3	51.5	0.4017
1936~40	21,845	181.6	5,985	566.8	27.4	0.6716
1940~44	19,274	160.2	3,537	334.9	18.4	0.6296

資料：朝鮮銀行調查部,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pp. I-237~38.

趙璣濬, 『韓國近代經濟發達史』, 『韓國文化史體系 II』, 1965, p. 903, p. 906.

(7) 原豊, 『韓國의 經濟開發』, 『後進地域의 經濟開發』, 慶應義塾經濟學會編, 1968年, p. 134.

(8) 第1次計劃은 1920년부터 30年計劃으로 推進하고, 第2次計劃은 1次計劃의 更新計劃으로서 1926년에 12年計劃으로 實施하다가 1934년에 中止하였다. 第3次計劃은 1940년부터 10年計劃으로 推進하였다.

의 推進에 따라 反當生産性<sup>(9)</sup>이 높아 지고 米穀收穫量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對日米穀輸出이 激增하여 오히려 韓半島內에서의 1人當消費量은 30年代前半에는 10年代前半에 比하여 44%나 減少되는 現象이 나타났다. 1936~40年期間과 그 以後에 米穀의 對日輸出이 減少되었던 것은 30年代初부터 日本의 農民을 保護하기 위하여 朝鮮米의 輸入을 牽制하기 시작한 것과 中·日戰爭 및 太平洋戰爭의 擴大로 韓半島에서 생산되는 米穀을 大陸駐屯軍의 食糧으로 供給하게 된 데 緣유하고 있다.<sup>(10)</sup>

한편 對外商品輸出額(金銀除外)에서 占하는 米穀輸出額(對日 및 其他地域)의 比重은 20年代에 年別 46%(1924~27年은 50~53.4%)에 달하였고 30年代에는 平均 40.3%에 이르렀다. 그러나 40年代에 접어들면서 韓半島 및 大陸의 軍用食糧, 工場勤勞者用 食糧의 需要가 늘어나게 되자 그 比重은 平均 12.6%(1912年 23.5%, 1940年 0.4%)의 水準으로 떨어졌다.<sup>(11)</sup>

## 2. 産業構造의 跛行性

日本은 韓半島를 食糧基地만이 아니라 日本工業製品의 消費市場으로 育成할 目的으로 30年初에 이르기까지 韓半島에서 米穀單作型 産業政策을 推進하였고, 大陸侵略을 開始하자 大陸兵站基地로서의 役割을 重視하여 韓半島에서도 農工併進策을 展開하기 시작하였으나 滿州事變(1931年) 以後의 工業化의 進展도 日本經濟에 대한 從屬性을 修正하는 것은 아니었

〈表 2〉 産業總生産額의 構成(1911~43年)

(單位: 百萬圓 經常價格, %)

	總 生 產 額		農 業		工 業		其 他 <sup>(1)</sup>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1 9 1 1	409	100.0	330	80.7	44	10.8	35	8.5
1 9 3 1	1,114	100.0	703	63.1	253	22.7	158	14.2
1 9 3 8	3,074	100.0	1,491	48.5	1,140	37.1	443	14.4
1 9 4 3	5,526	100.0	2,104	38.1	2,505	37.1	1,373	24.8

註: (1) 鑛產物, 林產物, 水產物

資料: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年度版

(9) 米穀의 反當生産性은 1925年 0.932石에서 1930年 1.154石으로, 1937년에는 1.635石으로 높아졌다.

(10) 日本은 1939年부터 食糧配給制를 實施하였고, 軍用 및 工場勤勞者用에 優先配分하였기 때문에 住民 1人當 年間糧穀消費量은 1938年의 米穀 0.769石, 雜穀 0.886石에서 1944년에는 米穀 0.557石, 雜穀 0.501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1)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pp. I-237~38.

다. 日本工業資本의 對韓進出은 大陸에 대한 兵站基地로서의 韓半島의 立地條件과 豊富한 動力 및 地下資源의 賦存, 그리고 低廉한 勞動力과 같은 有利한 生産條件<sup>(12)</sup>을 利用하여 日本工業과 有機的인 關聯을 갖고 있는 原資材 및 半製品을 量産 供給하여 日本工業의 不況打開과 産業合理化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目的이 있었기 때문에 工業化의 推進은 오히려 日本經濟에 대한 隸屬性을 深化시켰던 것이다.

이는 30年代以後 특히 金屬, 機械器具, 化學工業部門의 生産이 크게 擴大되기는 하였으나 業種別 自給率(韓半島內 生産品需要의 充足度)을 보면 1941年 現在 印刷製本, 機械器具, 紡績, 金屬工業 등이 매우 낮거나 또는 55~60% 水準에 不過하였던 데에서 알 수 있다.

다음에 主要工業部門을 對象으로 하여 그 從屬性과 脆弱性을 살펴 보면 특히 機械器具部門에 있어서 隸屬經濟의 特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첫째로 工作機械, 鐵道用機關車, 時計, 製圖 및 測量器, 寫眞機, 鐵道車輛, 기타 精密機械는 全量을 日本 등 外國에 依存하였고, 둘째로 보일러 및 同附屬品(自給率 3.7%), 原動機(同 7.1%), 醫療器具(同 3.5%), 電信電話機(同 0.3%), 自動車 및 同附屬品(同 0.3%) 등의 自給率

〈表 3〉 業種別 工産額의 推移(1928~43年)

(單位: 百萬圓, %)

	1928		1936		1943		自給率 (1941)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屬	26.1	7.7	33.7	4.9	300.0	14.6	59.5
機械器具	1.9	0.6	13.5	1.9	115.0	5.6	24.7
化學	15.4	4.6	159.4	22.9	600.0	29.3	82.8
紡績	29.3	8.7	99.5	14.3	345.0	16.8	55.9
窯業(시멘트包含)	7.7	2.3	21.9	3.2	90.0	4.4	68.1
木製品	7.4	2.2	9.9	1.4	120.0	5.9	76.1
印刷·製本	10.5	3.1	13.1	1.9	24.0	1.2	7.8
食料品	228.2	67.4	199.9	28.8	400.0	19.5	95.1
개스·電氣	6.3	1.9	40.0	5.8	30.0	1.5	—
其他	6.0	1.8	103.8	14.9	26.0	1.3	74.2
合計 <sup>(1)</sup>	338.8	100.0	694.8	100.0	2,050.0	100.0	72.7
(重化學工業)	43.4	12.8	206.6	29.7	1,015.0	49.5	—
(輕工業) <sup>(2)</sup>	295.4	87.2	488.2	70.3	1,035.0	50.5	—

註: (1) 金屬, 機械器具, 化學 (2) 重化學工業以外 業種

資料: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年度; 朝鮮銀行調查部, 『朝鮮經濟年報』, 1948年

(12) 「流域變更方式의 採用에 의한 朝鮮水力電氣資源의 再發見과 滿州國의 獨立에 수반되는 市場의 開拓, 日本本土가 統制經濟下에 들어감에 따라 朝鮮은 投資를 위한 自由天地가 되어……」日本 東洋經濟新報社, 『昭和財政史』, 第16卷 (舊外地財政(下)), 1961年, p. 44.

도 낮았으며, 세계로 工具, 計器, 其他 主要部品生産이 거의 없었으며, 세계로 金屬工業과 機械器具工業 또는 機械器具工業間의 相互聯關이 貧弱하여 縱的 橫的 系列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데에 反映되고 있다.<sup>(13)</sup> 그런데 이러한 機械工業部門의 脆弱性은 結局 金屬工業을 建設하되 完成製品인 鋼鐵製品보다 銑鐵을 더 많이 生産하여 이를 原資材로 日本本土에 移出하는 反面에 이를 日本에서 最終製品化(機械 等)하여 韓半島에 再移入하는 典型的인 植民地型 生産關係에서 생겨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4〉 鐵鋼材의 生産과 對日輸出(1944年)

(單位 : M/T, %)

	生産 實 績 (1)		對日輸出 (2)	比率 (2)/(1)
	金 額	構 成 比		
銑 鐵	435, 118	79. 6	388, 821	89. 4
普 通 鋼 材	72, 025	13. 2	50, 730	70. 4
特 殊 鋼 材	20, 249	3. 7	—	—
鍛 鑄 鋼	19, 253	3. 5	—	—
計	546, 645	100. 0	439, 551	80. 4

資料 :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104.

따라서 1940年 現在 그 自給率이 24.7%에 不過<sup>(14)</sup>하였던 機械工業部門의 後進성과 脆弱性은 韓半島에서 工業化를 推進하되 日本經濟의 必要에 따라 그 方法과 構造를 強要하였던 從屬化政策의 必然的인 所産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特徵은 金屬·紡績工業部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示唆한 바와 같이 韓半島에 있어서 金屬工業을 建設하되 銑鐵을 위주로 하는 素材生産에 重點을 두고 生産된 銑鐵의 約 90%를 原資材로서 日本에 移出하였던 것이나 原料, 用水, 動力, 勞動力, 市場條件이 상대적으로 有利하였던 纖維工業을 日本紡績資本에 獨占시켜 그 生産을 日本에 從屬시켰을 뿐만 아니라 綿織物을 除外한 高級織物의 供給을 日本에 依存하게 하여 投資利潤과 消費市場을 二重의으로 確保하도록 한 것이 그러한 것이다. 즉 滿州事變以後 日本紡績產業資本의 對韓進出로 近代的인 設備를 갖춘 纖維工業이 長足の 發展을 이룩하였으나 그 機械設備 및 部品과, 精練, 漂白, 染色, 整理, 加工에 필요한 染料, 助劑, 기타 工業藥品의 大部分을 日本에 依存하였던 것이나 絹織物, 人

(13) 朝鮮銀行調查部,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p. I-104~106.

(14) 1941년부터 機械器具工業部門의 自給率이 높아져 1941년에 35.1%, 1943년에 40.2%, 1944년에 51.7%를 記錄하였으나 이는 戰爭에 由來로 日本을 위시한 外國으로부터의 輸入이 減少된 데 기인하는 現象이었다.

絹織物, 麻織物, 毛織物 등 高級織物의 自給率<sup>(15)</sup>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線綿, 綿絲, 繭, 生絲, 麻 등 纖維原料를 日本에 輸出하고 대신 그 製品을 輸入하였던 것 등이 바로 纖維工業의 對日從屬性을 나타내는 좋은 例라고 할 수 있다.

### 3. 對日貿易構造

日政下에 우리 經濟에 強要된 隸屬性과 跛行的인 產業構造는 對日貿易關係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를 商品輸出入面<sup>(16)</sup>에서 보면 入超의 累積과 過多한 1次產品의 輸出 그리고 매우 높은 完製品輸入依存度로 要約될 수 있다.

日政下の 우리나라의 貿易收支는 1924~25年の 2개年을 除外하고 慢性的인 逆調狀態에서 脫皮하지 못하였고 특히 1935年以後 1943年에 이르기까지 商品貿易의 逆調幅이 계속 擴大되는 不安定한 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結果는 주로 對日貿易의 不均衡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1910年代에 對日 商品貿易의 入超額은 商品輸出額의 11% 水準에 지나지 않았고 金과 銀의 輸出을 감안하면 對日貿易收支는 黑字를 示顯하였던 것이 된다. 對日米穀輸出이 크게 늘어났던 20年代에는 商品貿易에 있어서도 黑字를 記錄하였다. 그러나 30年代에는 商品貿易의 逆調幅이 商品輸出額의 24% 水準에 달하였고, 1940~44年期間 中には 入超額이 商品輸出額의 약 70%에 이르렀다.

〈表 5〉 對 日 貿 易 收 支

(單位: 百萬圓)

	商 品 輸 出	商 品 輸 入	出 入 超	金銀輸出(純)
1910 ~ 19	583.6	648.5	△64.9	90.3
1920 ~ 29	2,272.6	2,202.6	540.0	67.2
1930 ~ 39	4,529.2	5,627.0	△1,097.7	379.7
1940 ~ 44	3,524.2	5,976.1	△2,451.9	—

資料: 『朝鮮貿易年報』(各年度)

그런데 이같이 商品貿易의 逆調幅이 擴大된 것은 對日貿易에 있어서 1次產品의 比重이 過度하게 높은 反面에 輸入에 있어서는 完製品依存度가 지나치게 높았던 植民地型 從屬的 經濟構造가 深化된 데 그 原因이 있었다. 商品類別 對日輸出入構造의 推移를 보면 1936年에 있어서도 輸出에서 占하는 食料品,<sup>(17)</sup> 非食用原料,<sup>(18)</sup> 原料用製品의 比重이 90%에 달하였고 輸入에서는 完製品이 59.3%를 占하였다. 1939년에는 凶作으로 인한 米穀生産의 減收

(15) 1942年 現在 高級織物의 自給率은 絹織物이 13%, 人絹織物이 44%, 麻織物이 38%, 毛織物은 0%였다. 朝鮮銀行調査部, 前掲書, p. I-112.

(16) 日本은 韓半島와 日本間의 輸出入을 域內去來로 보아 移出入이라고 불렀다.

(17) 食料品에는 米穀, 雜穀, 水産物, 葉煙草, 기타 動植物性 粗製食料品 등을 包含.

(18) 非食用原料에는 線綿, 木材, 石炭, 鑛物, 原油 등을 包含.

〈表 6〉 商品類別 對日輸出入의 比重<sup>(1)</sup>

(單位: %)

	1 9 2 4		1 9 3 6		1 9 3 9		1 9 4 3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食 料 品	68.9	9.8	56.2	6.3	26.6	8.4	15.6	7.3
調 製 食 料 品	2.5	8.1	2.1	5.7	3.8	4.7	6.4	3.7
非 食 用 原 料	14.1	3.4	17.1	12.5	17.4	12.5	13.1	9.2
原 料 用 製 品 <sup>(2)</sup>	8.8	10.4	16.7	12.4	24.7	12.5	31.6	9.1
完 製 品 <sup>(3)</sup>	2.0	61.0	4.4	59.3	27.6	61.8	33.3	70.8
雜 品	3.6	7.2	3.6	3.8	—	—	—	—
對日輸出入合計(百萬圓)	306.7	211.8	518.0	647.9	736.9	1,229.4	512.9	1,135.7
對日輸出入比重	93.2	68.5	87.3	85.0	73.3	88.6	72.8	82.8

註: (1) 1924年 및 1936年은 對日輸出入(移出人)比重. 1939年 및 1943年은 其他地域 包含.

(2) 原料用製品에는 生絲, 金屬1次製品, 硬化油, 魚油, 코우크스 包含.

(3) 完製品에는 機械類, 纖維製品, 金屬製品, 車輛·船舶 包含.

資料: 朝鮮貿易協會, 『朝鮮貿易史』, 1943年

朝鮮銀行調查部,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前年比 約 40% 減産)로 米穀輸出이 激減하여 輸出에서 占하는 食料品の 比重은 크게 떨어졌으나 原料用製品の 比重이 크게 높아져 1次產品 및 原料用製品이 占하는 比重은 68.7%에 달하였고 輸入에서 占하는 完製品의 比重은 61.8%를 維持하였다. 끝으로 財戰 2年前인 1943년에 있어서도 輸出에서 占하는 1次產品의 比重이 계속 低下되었으나 原料用製品の 比重이 높아져 1次產品 및 原料用製品の 比重은 60%에 달하였고 輸入에서 占하는 完製品의 比重은 70.8%로 上昇하였다.

한편 主要商品別로 보면 對日輸出의 大宗은 米穀이었으나 輸出에서 占하는 그 比重은 1935년에 45%, 1939년에 20.1%, 1943년에 24.3%에 달하였다. 그러나 30年代에 접어들면서 農工併進策을 推進하게 되자 對日輸出에서 占하는 原料用製品の 比重이 높아졌으나 이는 粗銅,<sup>(19)</sup> 生絲, 銑鐵,<sup>(20)</sup> 魚油, 鑛油, 硬化油 등의 對日輸出이 늘어난 데 기인하였다. 즉 30年代末부터 食糧基地만이 아니라 原資材의 供給基地로서의 韓半島의 役割이 重視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工業化의 推進은 일부 完製品의 輸出을 촉진시켰으나 그 大宗은 綿織物, 人絹織物, 化學纖維織物 등 纖維製品이었다. 다음에 日本으로부터 輸入한 主要品目은 織物과 機械類였고, 1933年 主要品目別 輸入構成에 있어서 織物은 23.3%, 衣類는 7.4%, 機械類는 3.7%를 占하여 以上 3개 品目的 輸入比重이 34.4%를 占하였다. 이어

(19) 1933年 粗銅對日輸出額은 5.7百萬圓(輸出比重 1.8%)이었으나 1939년에는 51.1百萬圓(6.9%)으로 늘어났다.

(20) 1933年 鋼鐵對日輸出額은 5.1百萬圓(輸出比重 1.6%)에 不遇하였으나 1944년에는 168.3百萬圓(23.1%)으로 늘어났다.



1944년에는 織物이 19.5%, 機械類가 14.8%를 占하여 2개 品目的 輸入比重이 34.3%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日本이 韓半島에서 農工併進策을 推進한 30年代初以後 商品類別 對日輸出構造에 있어서는 米穀의 比重이 低下되고 原料用製品과 纖維製品을 主軸으로 하는 完製品의 比重이 높아지는 構造的 變化가 생겨났으나 對日輸入構造의 基本骨格은 거의 變化하지 않았던 사실이 보여 주고 있는 것과 같이 韓半島를 1次產品 및 原資材의 供給源과 日本工業製品의 消費市場으로 育成한다는 當初의 方針에는 아무런 修正도 加하여 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日本工業과 有機的으로 結合된 原資材 및 半製品生産을 위주로 하는 跛行的인 工業化의 推進은 日本經濟에 대한 韓半島의 隸屬性을 더욱 深化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 4. 民族資本의 零細性

日本은 韓半島를 併呑한 後 土着韓人資本의 成長을 阻止, 封鎖하면서 日本資本의 對韓進出을 적극 誘導하였던 까닭에 韓半島의 經濟가 日本資本에 의하여 압도적인 支配를 받게 된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었다. 1940年末 現在 資本金 百萬圓以上인 工場公稱資本金<sup>(21)</sup>의 規模를 所有別로 보면 日人所有工場의 資本金은 全體의 94.1%를 占하였고 韓人所有工場의

〈表 7〉 部門別 所有別 工場公稱資本規模<sup>(1)</sup>(1940年末 現在)

(單位: 百萬圓, %)

	韓 人			日 人		
	金 額	業種別構成比	占 有 比	金 額	業種別構成比	占 有 比
金 屬	6.1	6.0	1.6	373.0	23.0	98.4
機 械 器 具	61.5	60.4	41.9	85.1	5.2	58.1
化 學	1.0	1.0	0.4	276.2	17.0	99.6
개 스 · 電 氣	—	—	—	553.0	34.1	100.0
窯業(시멘트包含)	—	—	—	53.2	3.3	100.0
紡 績	14.0	13.8	15.4	76.6	4.7	84.6
製 材 · 木 製 品	5.5	5.4	10.5	47.0	2.9	89.5
食 料 品	5.3	5.2	6.7	73.8	4.6	93.3
印 刷 · 製 本	1.5	1.5	42.9	2.0	0.1	57.1
其 他	7.0	6.9	7.7	83.5	5.1	92.3
合 計	101.9	100.0	5.9	1,623.5	100.0	94.1

註: (1) 資本金 百萬圓以上에 限함. 構成比는 業種別 比重, 占有比는 所有別 比重.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160.

(21) 1940年末 製造工業의 公稱資本金規模는 平均(社當) 35萬3千圓(서울市 所在)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資本金 百萬圓以上の 工場은 그 規模가 비교적 큰 工場이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資本額比重은 5.9%에 不過하였다. 특히 이를 業種別로 보면 電氣·가스 및 窯業(시멘트包舍)은 100%가 日人所有였고, 化學工業 및 金屬工業의 경우 日人占有比는 近 100%에 가까웠다. 뿐만 아니라 機械器具 및 印刷·製本業을 除外한 그밖의 業種도 日人資本占有率이 90%를 前後하였다.

한편 所有別 業種別 資本金의 分布를 보면 韓人의 경우 機械器具와 紡績業에 集中되고 있으며 日人의 경우 金屬, 化學, 電氣, 가스業에 集中投資되고 있었으나 當時의 機械器具工業이란 이미 指摘하였던 것과 같이 土木機械나 農機具의 製作, 輸送用·鑛山開發用 器具의 生産을 위주로 하는 中小規模工場으로 構成되어 있었다.<sup>(22)</sup> 또한 1941年 12月末 現在 1964개 製造業部門會社의 所有別 業種別 平均資本拂込額을 比較하여 보면 韓人所有會社(814개)의 平均拂込資本額(6萬圓)은 日人所有會社(1,150개)의 平均拂込資本額(42萬4千圓)의 14.2%에 지나지 않는 매우 零細한 規模였다. 더우기 이를 業種別로 보면 韓人所有會社가 345개 企業에 달하고 있었던 釀造, 飲料品製造業이나 窯業, 化學工業, 金屬機械器具製造業, 食料品製造業의 平均拂込資本額은 日人所有會社에 比하여 5分の 1에도 未達하는 零細한 規模였고 精米業이나 製材, 印刷業에 있어서도 韓人所有會社는 日人所有會社에 比하여 그 拂込資本額이 4分の 1를 前後하는 貧弱한 業體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1940年 業種別 勤勞者數의 構成比와 工産額의 構成比에 따라 勞動生産性을 比較하여 보면 大規模工場(勤勞者 100名以上)과 中規模工場(勤勞者 100名未滿) 및 小規模工場

〈表 8〉 製造業部門 業種別 所有別 拂込資本金平均規模(1941年 12月)

(單位: 千圓, %)

	韓人所有社當 (1)	日人所有社當 (2)	比 (1)/(2)
精 穀·同 製 品	31.8	134.4	23.6
釀 造·飲 料 品	45.8	397.2	11.5
食 料 品	21.1	128.5	16.8
紡 績	198.5	728.0	27.3
製 材·木 製 品	177.6	198.1	89.7
窯 業·同 製 品	61.8	418.1	14.8
製 藥	63.2	73.9	85.5
化 學	87.6	1,876.1	4.7
金 屬 機 械 器 具	133.0	840.9	15.8
印 刷	12.2	50.7	24.0
其 他	32.3	96.5	33.5
合 計	60.1	424.2	14.2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318.

(22) 1939年 現在 機械器具工場은 613個所에 달하였으나 그 96.7%가 中小企業에 該當하였다.

(勤勞者 30名未滿)間의 生産性的 隔差는 大體 2倍에 달하고 있었다.<sup>(23)</sup> 또한 1939年 業種別 勤勞者 및 工産額에 따라 算出한 勞動生産性은 工業部門全體를 1로 할 때 鐵鋼業은 5.60, 金屬工業은 1.83, 化學工業은 1.58에 각각 달하였던 反面에 機械器具工業이나 製材·木材品, 印刷·製本業 등의 勞動生産性은 相對的으로 크게 낮았다. 뿐만 아니라 紡績業의 경우 大企業의 勞動生産性係數는 1.2806, 中企業은 0.3773, 小企業은 0.5364에 달하여 역시 規模別 生産性的 隔差가 매우 컸다. 그리하여 이같은 業種別 生産性隔差가 業種別 所有別 資本規模나 平均拂込資本規模의 差異를 說明하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表 9〉 業種別 勞動生産性<sup>(1)</sup> (工業部門平均: 1.0000)

業 種	勞動生産性係數	業 種	勞動生産性係數
金 屬	1.8333	製 材 · 木 製 品	0.1739
機 械 器 具	0.3945	印 刷 · 製 本	0.5484
化 學	1.5849	食 料 品	0.9656
窯 業	0.5893	개 스 · 電 氣	5.6000
紡 績	0.7409	기 타	0.4898

註: (1) 業種別 工産額構成比/業種別 勤勞者構成比.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107에서 作成.

다음에 農業部門에 있어서는 1913년에 總農家戶數의 35%에 달하고 있었던 小作農의 比重이 1942년에는 53.8%으로 높아졌던 反面에 1914년에 22%를 占하였던 自作農의 比重은 1944년에 13.9%로 떨어지고, 1914년에 2%를 占하였던 地主의 比率이 1943년에는 6%로 높아지는 營業의 零細化가 進行되는 가운데 1945年末 現在 日人所有土地는 畓18萬町步(畓總面積의 14.1%), 田5萬町步(田總面積의 4.8%), 林野44萬町步(林野總面積의 2.8%)<sup>(24)</sup>, 垡地 및 其他1萬町步에 이르게 되었다.

〈表 10〉 民族別 土地所有<sup>(1)</sup>

	合 計	韓 人	日 人
總耕地(1945年末)[萬町步]	232	209(90.1)	23 (9.9)
畓	128	110(85.9)	18(14.1)
田	104	99(95.2)	5 (4.8)
總所有者數(1942年)[千名]	4,057.9 <sup>(2)</sup>	3,938.4(97.1)	118.5 (2.9)
1町步未滿	2,915.7 <sup>(2)</sup>	2,842.5(97.5)	72.4 (2.5)
100町步以上	1,133(名)	545(48.1)	586(51.7)

註: (1) ( )內는 合計에 대한 構成比. (2) 外國人包含.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29~30에서 作成.

(23) 大規模工場 1.3372, 中規模工場 0.6502, 小規模工場 0.6322(以上 工産額構成比 나누기 勤勞者 構成比로 算出).

(24) 1943年 現在 林野總面積基準.

그런데 總地稅納稅人員(土地所有者)의 2.9%에 해당하였던 日人 11萬8千餘名이 總耕地地面積의 9.9%에 상당하는 23萬町步를 所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町步未滿 所有者가 相對的으로 僅少하였던 反面에 100町步以上の 大地主가 韓人所有者數를 凌駕하고 있었던 데에서 韓人農家の 零細化傾向과 달리 少數日人에 의한 土地所有의 集中이 촉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5. 管理・技術人力的 不足

日本이 韓半島에서 推進한 教育政策이란 다름 아니라 植民地統治의 主從關係를 不變하게 維持하는 데 그 目的이 있었으므로 初・中等教育段階에 있어서 韓人教育和 日人教育을 分離시키고 朝鮮語教育을 廢止하는 한편 韓人の 財政負擔<sup>(25)</sup>에 의하여 初等教育 및 職業教育만을 擴大하되 高等教育의 機會를 最大限 封鎖하고, 教科課程은 日本帝國에 忠誠스러운 臣民을 배양하는 데 重點을 두는 등 高度로 差別的인 教育制度를 確立시켰다. 이같이 日本이 韓半島에서 差別的이고 偏頗的인 教育制度를 運營하게 된 것은 韓人에 初等教育 및 職業教育을 위한 門戶만을 開放함으로써 韓人の 組織的인 獨立運動을 阻止<sup>(26)</sup>하는 한편 技術, 行政, 企業經營面에서 日人の 獨占的인 地位를 固守하려는 底意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韓人和 日人을 合한 學生數는 1910年 11萬名水準에서 1937년에는 120萬名으로 늘어났으나 1940年度에 있어서도 公立普通學校에 대한 韓人學令兒童(6~12歲)의 就學率은 32.74%에 지나지 않았고, 또 近代의 教育機關에 대한 日人の 就學率이 2.7%인데 韓人の 就學率은

〈表 11〉 學歷別 人口構成 (1944年 5月 1日 現在 南韓地域)

(單位: 千名, %)

教育段階別 區分	韓 人		日 人		教育段階別 區分	韓 人		日 人	
	實 數	構成比	實 數	構成比		實 數	構成比	實 數	構成比
大 卒	5.1	0.03	5.1	1.29	初 等 中 退	511.4	3.30	5.1	1.29
專 卒	14.5	0.09	13.2	3.33	書 堂 修	527.4	3.40	—	—
中 卒	129.7	0.84	107.6	27.15	不 就 學	1,328.4	85.68	101.5	25.61
初 高 卒	29.6	0.19	78.0	19.68	計	15,500.5	100.00	396.3	100.00
初 等 卒	1,001.3	6.46	86.1	21.73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81에서 作成.

(25) 1919년부터 4個年計劃下에 3面에 公立普通學校 1校를 設置한다는 目標을 세우고 1920년부터 學校費(地方教育費特別會計)를 實施한 結果로 1919~1926年期間 중 韓人の 學校費賦課金負擔은 1922년부터 근 10倍가 늘어났다. 車耕權, 『韓國地方財政에 관한 研究』, 1969年, p. 47.

(26) Gene M. Lyons, *Military Policy and Economic Aid; The Korean Case, 1950~1953*,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61, p. 11.

0.6%에 지나지 않았다.<sup>(27)</sup>

그리하여 1944年 5月 1日 現在 南韓地域에 限하여 보더라도 中學校(5年制)卒業以上の 學歷을 가진 人口의 比重을 보면 韓人이 0.96%에 不過하였던 데에 比하여 日人의 경우 31%를 上廻하였다. 그 反面에 不就學人口는 韓人이 85%, 日人이 25%에 각각 달하여 民族別 教育水準의 隔差는 매우 컸다.

한편 1940年 朝鮮國勢調查報告<sup>(28)</sup>에 의하면 韓人의 有業人口는 總人口(韓人)의 37.85%(891萬2千名)에 달하고 日人의 有業人口는 日人總數의 39.93%(28萬2千名)로서 韓人보다 그 比重이 다소 높았다. 有業人口의 職業別 構成을 보면 韓人有業人口의 74.3%가 農業從事者였으나 日人의 경우 그 比重은 4.3%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日人有業人口의 8.8%는 製造業에, 7.3%는 通信運輸業에, 9.3%는 商業에, 16.8%는 公務·自由業에 각각 從事하고 있었으나 韓人有業人口는 製造業에 2.9%, 商業에 3.4%, 通信運輸業에 1.6%, 公務·自由業에 0.8%가 각각 從事하고 있었으며 특히 經營者, 技術者, 醫師·藥師 등 管理職, 專門職에 從事하는 韓人의 比重은 日人에 比하여 월등히 낮았다. 즉 韓人有業人口 中 管理職(經營者)은 0.05%, 技術者는 0.68%, 醫師·藥師는 0.08%를 占하였으나 日人有業人口의 同比率는 管理職이 0.68%, 技術者가 7.31%, 醫師·藥師가 0.83%에 각각 달하였다.<sup>(29)</sup>

또한 戶主를 調査對象으로 한 韓人과 日人의 職業構成(1942年)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韓人의 68.6%는 農林水產業에 從事하였던 反面에 日人의 90.4%는 鑛工業과 商業 그리고 公務·自由業에 종사하였으며 農林水產業從事者의 比重은 不過 4.7%에 지나지 않았

<表 12> 韓人과 日人의 職業構成(1942年, 戶主對象)

(單位: %)

職業區分	韓人	日人	職業區分	韓人	日人
農林業	66.64	3.56	公務·自由業	4.33	43.79
水產業	2.08	1.18	其他有業	10.72	4.81
鑛工業	7.39	23.09	合計	100.00	100.00
商業	8.59	23.53	實數(千名)	4,451.7	171.2

資料: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42年版

(27) 初等教育期間(6~12歲), 中等教育期間(13~18歲), 高等教育期間(19~24歲)의 年齡層에 대한 就學의 比率. 金泳謨, 「日帝下 社會階層의 形成과 變動에 관한 研究」, 『日帝下の 民族生活史』, 1971年, pp. 562-63.

(28) 1940年 國勢調查報告에 따르면 韓人人口總數는 23,547,233名, 日人總數는 707,333名으로 集計되었다.

(29) 實數는 韓人 經營者가 4,709名, 同技術者가 58,868名, 同醫師·藥師가 7,064名, 日人 經營者가 1,910名, 同技術者가 20,654名, 醫師·藥師가 2,334名으로 集計되었다.

다. 그런데 특히 留意하여야 할 것은 職業區分을 보다 細分하여 보면 韓人과 日人의 職業構造의 差異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1941年 現在 總督府 農林局의 高級官吏 58名 중 韓人은 1名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나 製造業從事者 중 日人은 監督, 經理, 技師, 經營者 등의 職業上 地位를 갖고 있었으나 韓人은 주로 未熟練勤勞者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sup>(30)</sup> 등이 그러한 것이다. 그밖에 1944年 現在 製造業部門技術者 總數 8,476名 중 韓人은 그 19.3%에 불과한 1,632名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나 金屬·化學工業部門에 있어서 韓人技術者數가 11% 水準에밖에 이르지 못하고 개스·電氣, 窯業部門에 있어서도 그 比重이 20%를 下廻하고 있었던 것도 그러한 例에 該當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機械器具나 紡織, 食料品, 印刷·製本, 土木建築 등 部門에 있어서도 韓人技術者는 大部分이 低位技術者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韓人高級技術人力의 養成을 回避하여 왔던 日本의 植民地教育政策의 당연한 所産이었다고 할 수 있다.

〈表 13〉 製造業部門 技術者數

(單位: 名, %)

業 種 別	總 數	韓 人	比 率	業 種 別	總 數	韓 人	比 率
金 屬	1,214	133	11.0	製材·木製品	99	32	32.3
機 械 器 具	609	150	24.6	食 料 品	336	121	36.0
化 學	2,004	222	11.1	印 刷 · 製 本	56	24	42.9
개 스 · 電 氣	991	190	19.2	土 木 建 築	2,347	551	23.5
窯 業 · 土 石	245	48	19.6	기 다	91	29	31.9
紡 織	484	132	27.3	計	8,476	1,632	19.3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100.

### III. 抑壓된 인플레이션壓力的 增大

#### 1. 物資不足과 消費抑制

日本은 中國大陸에 대한 侵略戰爭(1937年 7月 開始)을 契機로 하여 우선 資金 및 物資에 대한 直接統制<sup>(31)</sup>를 강화하고 이어 이듬해인 1938年 봄부터 「國家總動員法」을 制定 施行하여 統制經濟로 移行하였다. 이 國家總動員法은 總力戰體制을 강화하기 위한 措處로서

(30) Paul W. Kuznets, *Economic Growth and Structure in the Republic of Korea*, Yale University Press, 1977, pp. 25~6.

(31) 軍需産業과 輸出産業以外의 産業에 대한 貸出을 規制하기 위하여 「臨時資金調整法」을 制定 (1937年 9月) 實施하고 同時에 「輸出入等臨時措置法」도 制定하여 輸出入物品의 賣買, 生産, 消費를 制限하도록 하였다.

政府의 必要에 따라 人力의 徵用과 物資의 徵發, 賃金과 價格의 公定, 企業經理 및 利益處分에 대한 規制, 工場·土地의 收用 등을 可能하게 하였으며 物資動員計劃의 編成에 따른 重要物資의 割當<sup>(32)</sup>과 함께 1939年 9月부터 總動員法의 發動에 의하여 勞動力의 徵用, 賃金·價格의 凍結, 公定價格制, 食糧配給制 등 일련의 統制措置가 강화되었다.

이같이 戰力の 確保에 最優先順位를 둔 統制가 강화되는 가운데 軍需産業은 擴張을 거듭 하였으나 民需用 消費財産業은 統制의 影響을 받아 그 生産이 크게 萎縮되고 物資不足이 顯在化되었다. 1936~43年期間 중 工産額은 實質的으로 約 52%가 增加하였고 그 중 金屬工業과 機械器具工業의 實質生産額은 4倍以上으로 늘어나고 化學工業生産額도 約 2倍로 擴大되었으나 食料品工業의 實質生産額은 불과 3%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戰時 統制의 影響을 가장 크게 받은 綿紡織業의 경우 1940~42年期間 중 綿織物生産量이 42.8%나 激減하고<sup>(33)</sup> 1人當消費量도 5.4야드(1940年)로부터 3야드(1942年)로 줄어 들었다.

한편 食糧은 이미 1939年부터 公定價格制와 配給制度를 實施하게 되자 1人當 年間米穀消費量은 1938年 0.769石에서 1944년에는 0.557石으로 떨어지고, 雜穀消費量도 同期間 중 0.886石에서 0.501石으로 떨어져 敗戰直前에는 1人當 1日消費量이 雜穀을 合하여 3合에도 未達하는 極심한 食糧難을 겪게 되었다.

그리하여 日政末期에는 消費財의 不足으로 極度에 달하는 耐乏生活이 強要되었는데 當時의 窮狀은 日政末期에 수립된 國民所得配分計劃表(總督府 財務局 推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計劃表에 의하면 1941~45年期間 중 國民消費資金의 比重을 63%에서 32%水準으로 크게 低下시키는 反面에 財政部門의 相對的 規模를 國民所得의 17% 水準에서 維持하

〈表 14〉 國民所得配分計劃表(韓半島)

(單位: 億圓 經常價格, %)

	國民所得	財 政 資 金		國 民 消 費 資 金		貯 蓄 <sup>(1)</sup>	
		金 額	配 分 比	金 額	配 分 比	金 額	配 分 比
1941	30	5.0	16.7	19.0	63.3	6.0	20.0
1942	35	6.0	17.1	20.0	57.1	9.0	25.7
1943	40	7.1	17.8	20.9	52.3	12.0	30.0
1944	55	10.2	18.6	21.8	39.6	23.0	41.8
1945	70	12.1	17.3	22.9	32.7	35.0	50.0

註: (1) 國債消化, 生産擴充資金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318.

(32) 1938년부터 物動計劃을 編成하여 原資材로부터 機械, 食糧에 이르는 重要物資의 生産, 輸入을 統制하고, 用途別 割當制를 實施하였다.

(33) 原料인 綿花의 軍需用供給이 激増한 反面에 繅綿의 輸入이 抑制된 데 주된 原因이 있었다.

는 한편 貯蓄의 比重을 1941年의 20%에서 50%水準으로 끌어 올리도록 되어 있으니 이같은 國民所得配分計劃은 바로 消費物資의 不足이 걱정하여 갔던 戰時에 인플레이션壓력을 극소화시키면서 戰爭을 遂行하여야 한다는 當時의 基本政策方向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主要物資의 配給制와 公定價格制下에서도 供給不足에 따른 모든 物資의 品貴와 原資材價格 및 勞賃의 引上을 反映하여 物價는 계속 騰貴하였다. 1936~44年期間 中 서울市 都賣物價는 年平均 11.6%씩 上昇하고, 同小賣物價는 年平均 10.7%씩 上昇하였다. 이를 商品類別로 보면 化學製品과 雜品(日用品), 食料品の 價格上昇率이 높아 物價上昇을 主導 하였으나 특히 1943年과 1944年에는 食料品 및 雜品の 都賣物價上昇率이 前年比 30% 내지 40%以上에 달하였다.

### 2. 財政金融의 運用과 인플레이션壓력

日政末期의 物價上昇은 1次的으로 絶對的인 物資不足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財政金融面에서도 人플레이션壓력을 增加시켰던 몇가지 證據를 찾아 볼 수 있다. (34) 當時의 總督府 特別會計歲出은 1936~43年期間 中 무려 4.7倍의 規模로 늘어 났으니 이는 同期間 中의 서울都賣物價上昇率 2.1倍를 훨씬 上廻하는 것이었고 또 公債 및 借入金에 의한 歲出充當比率은 1936年 8.1%에서 1943년에는 23.9%로 높아졌다. 이어 1944年度 豫算은 前年比 59.4%가 늘어나고 1945年度 豫算은 27.7%가 增加하는 매우 높은 歲出伸張率을 나타냈으며 특히 公債·借入金依存度도 1944年度에는 26.8%에 달하게 될 것으로 豫定되었다. 當時의 公債는 赤字公債가 아니고 事業債였으나 그 發行은 주로 日本金融市場에 依存하고 있었기 때문

〈表 15〉 歲出規模의 膨脹과 公債·借入金充當率(朝鮮總督府 特別會計)

	歲出決算額		서울都賣物價指數	公債借入金에   의한  充當率 (%)
	金額(百萬圓)	指數		
1 9 3 6	324.5	100.0	100.0	8.1
1 9 3 9	680.1	209.6	163.3	19.7
1 9 4 1	931.8	287.2	186.6	16.0
1 9 4 2	1,155.8	356.2	195.6	14.4
1 9 4 3	1,532.0	472.1	215.1	23.9
1 9 4 4 <sup>(1)</sup>	2,441.7	752.5	241.1	26.8
1 9 4 5 <sup>(1)</sup>	3,117.0	960.6	272.4 <sup>(2)</sup>	18.4

註：(1) 豫算 (2) 6月

資料：東洋經濟新報社, 『昭和財政史』, 第16卷(舊外地財政(下));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II-145.

(34) Kutznets, *Economic Growth and Structure in the Republic of Korea*, pp. 27~8.



에 歲出規模의 膨脹이 지니고 있었던 名目的 擴張效果도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戰時經濟로 移行한 後 通貨(朝鮮銀行券)發行額도 크게 늘어 났으며 특히 戰局이 敗勢를 나타내게 되자 軍需生産擴大와 軍事費支出의 累積으로 1943年末에는 通貨發行이 前年未對比 61%, 그리고 1944年末에는 114%가 각각 늘어났다. 이에 比하여 總生産은 1943年에 前年對比 13.8%, 1944年에 6.3%가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都賣物價는 1943年에 前年比 約 10%, 1944年에 12%가 각각 上昇하여 通貨發行의 激增으로 潛在的 인플레이션 要因이 크게 增大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表 16〉 通貨發行・總生産額・物價의 推移(1936~44年)

	通 貨 發 行 (年末)			總生産額指數	서울都賣物價指數
	金額(百萬圓)	前年比增減率	指 數		
1 9 3 6	210.6	△4.6(%)	100.0	100.0	100.0
1 9 3 9	444.0	37.9	210.8	167.0	163.3
1 9 4 1	741.6	27.8	352.1	220.0	186.6
1 9 4 2	908.6	22.5	431.4	210.0	195.6
1 9 4 3	1,466.8	61.4	696.5	239.0	215.0
1 9 4 4	3,135.7	113.8	1,488.9	254.0	241.1

資料：朝鮮銀行調査部, 前掲書, pp. III-65, III-145, I-264.

이같이 1943年과 1944年에 通貨發行이 크게 늘어 났던 것은 당시 發券銀行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었던 朝鮮銀行의 發券機能에 의하여 軍需産業에 대한 支援과 韓半島內에 있어서의 軍事費支出, 日本으로 搬出した 物資代의 決裁 등에 充當하기 위한 資金을 조달하는 데 目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43年 및 1944年의 通貨增發은 특히 制限外發行<sup>(35)</sup>에 크게 依存하였던 데 그 特徵이 있었다. 즉 1943년에는 發行額의 33%가 制限外發行에 依存하고 1944년에는 그 75.6%를 制限外發行에 依存하였다. 그런데 制限外發行의 保證準備는 日本國債, 日本公社債, 기타 商業어음 등이었으므로 日本의 敗戰과 함께 保證準備로서의 價値를 喪失하게 되어 既發行된 通貨의 安定性도 큰 威脅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日本은 敗戰과 더불어 韓半島에 있어서 金融을 일대 混亂 속에 빠뜨리는 故意的인 通貨增發을 단행하였다. 즉 모든 日人官吏와 日人企業의 雇傭者에 대하여 1年分 俸

(35) 元來 發行準備로서 正貨準備와 保證準備를 두되 保證準備發行에는 限度額을 두고, 保證準備로서 保有하는 日本國債, 日本公社債, 商業어음 등 確實한 證券을 保證으로 發券하는 制度(制限外發行)도 두었다. 단 制限外發行에는 發行稅를 負擔하도록 하였다.

給·給與를 完拂하였고 모든 貯蓄性預金과 生命保險金을 全額 支給하였으며<sup>(36)</sup> 이로 인하여 1945年 8月 15日부터 同年 9月 8日(美軍의 進駐開始)에 이르는 4週未滿의 期間 동안에 約 37億圓에 달하는 通貨가 追加 發行되었다.

〈表 17〉 解放前後期の 通貨發行과 物價動向

(單位：百萬圓, %)

年 月 末	通 貨 發 行			서 울 都 賣 物 價	
	金 額	前月比增減率	指 數	1936=100	1944=100
1944. 12	3, 135. 7	16. 5	100. 0	241. 1	100. 0
1945. 4	3, 798. 9	6. 3	121. 2	266. 9	110. 7
1945. 6	4, 377. 0	8. 1	139. 6	272. 4	113. 0
1945. 7	4, 698. 2	7. 3	149. 8	—	—
1945. 8	7, 987. 8	70. 0	254. 7	1, 752. 0	726. 7
1945. 9	8, 680. 2	8. 7	276. 8	2, 047. 2	849. 1
1945. 12	8, 763. 3	1. 6	279. 5	4, 359. 2	1, 808. 1

資料：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p. III-65, III-145에서 作成

그리하여 戰時經濟體로 移行하면서부터 累積된 인플레이션壓力은 마침내 이같은 通貨濫發을 契機로 顯在化하여 우리 經濟는 惡性 인플레이션에 突入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都賣物價는 1944年 對比 1945年 6月末에 13%의 上昇勢를 나타냈으나 1945年 9月末에는 1944年 末 對比 8.4倍로 暴騰하고, 同年末에는 通貨供給이 계속 安定勢를 維持하였음에도 不拘하고 1944年 對比 18倍로 暴騰하는 惡性 인플레이션의 深化過程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 IV. 南北分斷과 經濟基盤의 分裂

日本이 韓半島에서 農工併進策을 推進한 以來 平地가 많은 南韓에서는 農業과 輕工業의 發展을, 水力과 地下資源이 豊富한 北韓에서는 重化學工業建設을 促進하였던 가담에 南北間에는 이미 對稱的인 地域構造가 形成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産業生産에 있어서도 地域의 分業과 상당히 緊密한 相互補完關係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南北分斷은 統一의이고 補完的인 經濟基盤을 分裂시킴으로써 日政下에 形成된 産業構造의 跛行性이나 技術의 後進性 및 管理·技術人力的 不足을 더욱 深化시켰다. 더욱기 南北分斷은 地域間 分業을 不可能하게 하여 解放直後の 經濟에 混亂을 加增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經濟에 매우 어려

(36) J. Earnest Fisher, "Korea Today," *Far Eastern Quarterly*, Vol. III No. 3 (May 1946), pp. 261~71 參照.

은 初期條件을 賦課하게 되었다. 이제 南北分斷이 가져다 준 經濟分裂의 實態와 人爲의으로 造成된 南北의 地域經濟의 特徵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人口와 資源

1944年 5月 1日 現在 國勢調査에 의한 總人口(韓人에 限함)는 25,120千名으로서 그 중 南韓人口는 16,565萬名(總人口에 대한 比率 65.9%)에 달하였고 1943年 現在 面積에 따른 人口密度는 1km<sup>2</sup>當 153名(北韓地域 76名)에 이르고 있었다. (37) 그러나 8.15解放과 더불어 200萬名(38)을 前後하는 北韓人口가 南下하고 120萬名이 넘는 海外同胞가 歸還함에 따라 南韓人口는 1946年 8月에 19,369千名으로 急增하고 1948년에는 2千萬名을 上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38度線 以南地域의 實面積에 따라 人口密度를 計算하여 보면 1946年 8月 現在 南韓은 1km<sup>2</sup>當 207名(北韓地域은 同年 73名)이 된다.

<表 18> 面積, 人口, 耕地面積<sup>(1)</sup>

	單位	計	南 韓	北 韓	南韓의 比重 (%)
面 積 (1943)	km <sup>2</sup>	220,814	108,366	112,448	49.1
(1945. 8. 15)	"	220,769	93,634	127,136	42.4
人 口 (1944. 5. 1)	千 名	25,120	16,565	8,555	65.9
(1946. 8)	"	28,626	19,369	9,257	67.7
耕地面積 (1939)	km <sup>2</sup>	44,892	24,855	20,037	55.4
(畓)	"	17,481	13,235	4,247	75.7
(田)	"	27,410	11,620	15,790	42.4
耕地面積 (1944)	"	41,848	23,896	17,951	57.1
(畓)	"	17,196	12,957	4,239	75.4
(田)	"	24,652	10,940	13,712	44.4

註：(1) 道別配分이며 南韓에는 京畿道, 江原道, 北韓에는 黃海道 全域이 포함되고 있음. 1944年 耕地面積에는 火田 包含.

資料：朝鮮銀行調査部, 前掲書, pp. I-36~9, III-17~9; 同『經濟年鑑』, 1949年版, pp. IV-17, IV-29.

또한 1943年 現在 面積에 따라 耕地面積(1944年)의 比率를 算出하여 보면 全國은 19%, 南韓은 22%, (39) 北韓은 16% 水準이었다. 다음에 耕地面積의 田·畓構成을 보면 1944年 現在 全國은 畓이 41.1%에 田이 58.9%를 占하였으나 地域別로는 南韓의 경우 畓이 54.2%, 田이 45.8%, 北韓의 경우 畓이 23.6%, 田이 76.4%를 각각 占하였다. 한편 南韓은 全面

(37) 南北韓人口(1945. 5. 1)와 面積(1943)은 道別 配分이기 때문에 實勢를 나타내지 않음.

(38) 外務部 資料에 의하면 1945. 8. 15 以後 1948年 12月末까지 38以北越南者를 969千名, 歸還同胞數를 1,220千名으로 잡고 있으나 1949年 5月 1日 國勢調査에 의한 實際人口와 推定人口增加率에 따라 算出하면 越南人口는 最小 170萬名에서 最大 200萬名에 달하게 된다. 朝鮮銀行調査部, 『經濟年鑑』, 1949年版, pp. I-59, IV-19 參照.

(39) 1946年末 南韓의 總耕地面積은 21,728km<sup>2</sup>로서 總面積(95,223km<sup>2</sup>)에 대한 比率는 22.8%로 밝혀지고 있다. 朝鮮銀行調査部, 『經濟年鑑』, 1949年版, p. I-2 參照.

積의 42.4%를 占하였으나 耕地面積의 57%, 畝의 75%, 田의 44%(以上 1944年 基準)를 占有하였다. 요컨대 南韓은 平野地帶가 많은 地理的 條件을 反映하여 畝面積이 컸으나 山岳地帶가 많은 北韓은 田面積이 압도적으로 컸다.

그러나 水力 등 에너지資源을 위시하여 鑛業資源은 주로 北韓地域에 賦存되어 있었다. 1940年에 實施된 水力調査(第4回)에 依하면 우리나라의 總包藏水力은 586萬kw로서 그 中 利用可能水力은 455萬kw로 推定되었다. 한편 南韓의 包藏水力은 83萬kw(總包藏水力의 14.2%)로 그 中 既許可水力은 15萬kw, 未許可水力은 68萬kw에 各 各 달하였으나 發電開始 發電所의 施設容量은 6萬kw(年平均電力은 約 3.7萬kw)로서 總施設容量의 4.3%에 不過하였다. 따라서 1944年 現在 主要水力發電所의 大部分이 北韓地域에 偏在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南韓地域에도 未開發包藏水力이 70餘萬kw(工事未着手分 包含)에 달하여 水力電源의 開發餘地가 상당히 컸던 것도 알 수 있다.<sup>(40)</sup> 그러나 解放直前 總發電力의 92%는 北韓에서 產出되고, 南韓에서 供給되는 電力은 水力, 火力, 油力 등을 合하여 約 8萬kw(總發電力의 8%)程度 밖에 되지 않았다.<sup>(41)</sup>

〈表 19〉 水力資源의 地域別 分布(1944年現在)

	發電地點數			發電施設容量(千kw)			利用可能發電力(千kw)
	合計	南韓	比重	合計	南韓	比重	
既許可水力							
發電開始	32	6	18.8(%)	1,426.8	61.9	4.3(%)	1,026.8
工事施行中	9	2	22.2	1,169.8	40.9	3.5	769.8
工事未着手	12	3	25.0	904.2	47.3	5.2	612.2
小計	53	11	20.8	3,500.8	150.0	4.3	2,408.8
未許可水力							
既調査	39	19	48.7	1,306.6	482.3	36.9	1,188.3
未調査	71	25	35.2	1,056.4	198.6	18.8	955.1
小計	110	44	40.0	2,363.0	680.9	28.8	2,143.4
包藏水力合計	163	55	33.7	5,863.7	830.9	14.2	4,552.2

資料：朝鮮銀行調査部, 『經濟年鑑』, 1949年版, p. IV-203.

끝으로 解放直後의 南北韓 鑛區分布에 따라 鑛業資源의 地域別 賦存狀態를 살펴보면 黑鉛, 石炭, 鐵鑛, 雲母, 重晶石, 마그네사이트 등 重要鑛山이 北韓에 所在하고 있었으나 南韓에도 金銀鑛, 金銀銅鑛, 含金金屬鑛, 砂金, 高嶺土, 重石, 石綿, 矽砂 등 重要鑛業資源이

(40) 1978年 現在 우리나라의 水力發電設備容量은 71萬1千kw에 달하고 있다.

(41) 解放直前(1945. 7) 南韓의 電力供給比率은 水力이 90%(平均發電力 52.4千kw), 火力이 10%(同 5.5千kw)였다.

〈表 20〉 南北韓電力比較(1945年)

(單位: 千kw)

	出 力	比 率	發電力(年平均)	比 率
南 韓	206.3	14.0(%)	79.5	8.0(%)
北 韓	1,262.5	86.0	909.2	92.0
計	1,468.8	100.0	988.7	100.0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324.

賦存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主要鑛産物의 分布를 보면 石炭 中 主要炭種은 褐炭과 無煙炭이었고 前者의 埋藏量은 3億7千萬톤으로 推定되고 있었으나 그 90%는 咸北에 分布되어 있고, 後者의 推定埋藏量은 13億5千萬톤이었으나 그 80%가 平南에, 나머지 三陟, 寧越 등에 分布되어 있었다. 또 우리나라 4大鑛物<sup>(42)</sup>의 하나인 鐵鑛石도 黃海·咸鏡·平安道에 埋藏되어 있고 그 中 咸北茂山鑛은 品位 38%의 貧鑛이지만 그 埋藏量은 10億톤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었다. 그밖에 마그네사이트(推定埋藏量 30億톤), 重晶石, 雲母, 螢石, 磷灰石, 硫化鐵 등도 주로 北韓地域에 分布되어 있었다.

〈表 21〉 地域別 鑛區의 分布(1945. 8. 15 現在)

鑛 種	合 計	南 韓	比 重	鑛 種	合 計	南 韓	北 韓
			(%)				(%)
金 銀 鑛	3,466	1,815	52.4	螢 石	230	74	32.2
金 銀 銅 鑛	1,979	940	47.5	高 嶺 土	222	123	55.4
含金金屬鑛	898	388	43.2	重 石	219	95	43.4
含金非金屬鑛	439	165	37.6	石 綿	157	92	58.6
砂 金	226	124	54.9	硅 砂	102	81	79.4
黑 鉛	741	131	17.7	重 晶 石	38	1	2.6
石 炭	599	157	26.2	마그네사이트	18	—	—
鐵 鑛	328	77	23.5	其 他	651	264	40.6
雲 母	264	58	22.0	合 計	10,577	4,585	43.4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p. I-24, I-86~9에서 作成.

## 2. 産業生産

南北分斷은 이미 日政末期부터 形成되기 시작한 農業과 輕工業을 위주로 하는 南韓과 工業中心의 北韓이라는 對稱的 地域構造를 深化시켰으나 이를 産業生産面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農業生産에 있어서는 南韓이 米穀과 麥類의 生産을 위주로 하고 北韓은 주로 雜穀

(42) 金, 鐵, 黑鉛, 石炭을 말한다.

類, 豆類, 藜類를 生産하는 地域적으로 不均衡한 生産構造가 造成되었다. 1942~44年期間(3年)을 對象으로 하는 平均耕地面積과 主要糧穀別 平均生産량을 地域別로 보면 南韓은 米穀의 66%와 麥類의 71% 以上을 生産하였던 反面에 北韓은 雜穀類의 83%, 豆類의 66%, 藜類의 63%를 生産하였으며 南北分斷은 南韓보다 北韓에 더 심각하고 慢性的인 食糧不足 問題를 惹起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그러나 數百萬名에 달하는 北韓住民의 南下와 海外同胞의 歸還으로 南韓人口가 近 2千萬名으로 急増함에 따라 南韓에서도 食糧事情이 惡化되었다. 이같이 南北韓이 모두 解放直後 그리고 그 後에도 長期間에 걸쳐 食糧自給이 懸案이 되어 왔던 것은 南北分斷으로 인하여 地域적으로 不均衡한 農業生産構造가 强要되었던 데에도 그 原因의 일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表 22〉 主要糧穀別 平均耕地面積과 生産量(1942~44年)

(單位: km<sup>2</sup>, 千石, %)

	總 計 (1)	南 韓 <sup>(1)</sup> (2)		比 (2)/(1) 重		
		耕地面積	生産量	耕地面積	生産量	耕地面積
米 穀	13,422	20,700	10,262	13,718	76.5	66.3
麥 類	14,784	12,198	11,508	8,674	77.8	71.1
雜 穀 類	11,949	6,491	3,581	1,145	29.8	17.6
豆 類	7,944	2,897	2,789	988	35.1	34.1
藜 類	2,024	992 <sup>(2)</sup>	743	371 <sup>(2)</sup>	36.7	37.4
計	55,549	—	28,840	—	51.9	—

註: (1) 道別集計額 (2) M/T表示(1000kg)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에서 作成.

다음에 鑛業部門에 있어서는 重要한 鑛業資源이 大部分 北韓地域에 賦存되어 있었던 關係로 南北分斷은 北韓의 地下資源에 依存하였던 南韓工業에 심각한 打擊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42年 現在 280개 重要鑛山을 對象으로 한 主要鑛山物의 地域別 分布는 〈表23〉과 같으나 이 表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雲母, 鐵鑛, 磷, 重晶石, 마그네사이트 그리고 硅藻土는 全量이 北韓에서만 生産되었으며 南北分斷은 이들 鑛物資源을 利用하는 金屬, 化學, 窯業, 電氣工業 등에 심각한 打擊을 주게 되었다.<sup>(44)</sup> 元來 豊富한 水力 및 工業資源의 賦存條件때문에 이들 工業은 주로 北韓에 立地하고 南韓에는 紡績, 食料品, 印刷·製本, 木製品 등 輕

(43) 重工業의 優先開發政策과 農業의 集團化에 따른 生産意慾의 喪失이 모든 共產國家에서 農業問題를 「아킬레스腱」으로 만들고 있으며 北韓도 그 例外는 아니다.

(44) 예컨대 電氣絶緣用·耐熱用·保溫用으로 使用되는 雲母는 電氣器具製造에 不可缺少하고, 鐵鑛은 製鐵에, 磷灰石은 肥料製造에, 螢石은 製鋼, 유리, 시멘트製造에, 그리고 重晶石은 페인트·고무 등에 使用된다.

〈表 23〉 主要鑛山物の 生産(1942年, 280개 重要鑛山對象)

(單位: 1000kg)

鑛 種	合 計	南 韓	比 重	鑛 種	合 計	南 韓	比 重
金 鑛 <sup>(1)</sup>	31,389	13,210	42.1	螢 石	26,757	4,046	15.1
銅	4,532	1,575	34.8	硫化鐵·망간	233,891	1,544	0.7
亞 鉛	11,988	3,291	27.5	重 石·水 銀	3,996	1,261	31.6
黑 鉛	75,814	34,744	45.8	無 煙 炭 <sup>(2)</sup>	3,931	1,116	28.4
鉛	12,022	1,290	10.7	有 煙 炭 <sup>(2)</sup>	2,731	42	1.5
石 綿	4,735	4,735	100.0	硅 砂	170,008	73,098	43.0

註: (1) kg 表示 (2) 1000M/T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96에서 作成

工業이 立地하는 地域의 分業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만 南北分斷은 그러한 補完的인 工業構造를 兩斷하는 데 그치지 않고 北韓으로부터의 原料供給을 杜絶케 하여 既存 南韓 工業의 存立을 危殆롭게 하였던 것이다.

1939年 現在 道別 工産額의 集計에 따른 地域別 工業構造를 比較하여 보면 南韓에 있어서는 輕工業의 比重(窯業, 개스·電氣 除外)<sup>(45)</sup>이 76.5%에 달하고 있었던 反面에 北韓에 있어

〈表 24〉 南北韓 業種別 工産額比較(1939年)

(單位: 百萬圓, %)

	合 計	南 韓 <sup>(1)</sup>		北 韓		南韓의 比重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屬	136.1	13.6	1.9	122.5	15.5	10.0
機 械	53.2	38.4	5.4	14.8	1.9	72.2
化 學	501.8	91.2	12.9	410.6	52.0	18.2
小 計	691.1	143.2	20.2	547.9	69.4	20.7
紡 績	201.4	171.0	24.1	30.4	3.9	84.9
窯 業	43.3	12.1	1.7	31.3	4.0	27.9
木 製 品	21.1	13.7	1.9	7.3	0.9	64.9
印 刷·製 本	19.4	17.2	2.4	2.2	0.3	89.0
食 料 品	328.4	213.6	30.1	114.7	14.5	65.1
개 스·電 氣	30.5	11.1	1.6	19.4	2.5	36.4
기 타	163.3	127.5	18.0	35.8	4.5	78.1
小 計	807.4	566.2	79.8	241.1	30.6	70.1
合 計	1,498.5	709.4	100.0	789.1	100.0	47.4

註: (1) 道別 集計額.

資料: 朝鮮銀行調查部, 前掲書, p. I-100~01.

(45) 當時의 産業分類 중 窯業에는 시멘트, 陶磁器, 硝子, 珪瑯鐵器, 鉛筆, 耐火벽돌, 벽돌製造業 等 이 포함 되고, 電氣工業에는 各種電氣機器가 포함되고 있었다.

서는 重工業(窯業, 가스·電氣 包含)이 75.9%를 占하여 南韓의 輕工業과 北韓의 重工業이란 對稱의인 地域工業構造가 形成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南北分斷으로 南韓과 北韓이 각기 分離된 經濟單位가 됨에 따라 南韓의 工業은 말할 것도 없고 北韓의 工業도 原資財 및 中間財의 供給杜絶 내지 不足, 消費市場의 喪失로 심각한 困境에 處하게 되었고 地域間 分業이 事實上 排除되었기 때문에 南韓이나 北韓에서 모두 工業構造의 跛行성이 深化될 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南韓에서는 金屬工業과 遊離된 機械工業, 製紙工業이 없는 印刷·製本業, 原料供給이 杜絶된 化學工業, 大量消費市場을 喪失한 纖維工業과 食料品工業<sup>(46)</sup>이 생겨 나게 되고 北韓에서는 原料나 素材, 燃料은 生産하되 消費財의 大部分을 生産하지 못하는 跛行的인 工業構造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電力도 北韓으로부터의 受電量이 많았던 關係로 南北分斷은 南韓工業에 致命的인 打撃을 주게 되었다. 앞에서 指摘하였던 것과 같이 1945年 現在 南韓은 水力·火力 등을 합하여 年平均 約 8萬kw 程度의 電力을 自體供給할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었으나 解放後에는 水力源과 發電施設의 貧弱, 火力發電用 石炭供給의 不足 등으로 常時 發電力은 3萬kw, 最大 4萬kw 程度로 低下되었다. 한편 北韓으로부터의 受電量은 1946年을 前後하여 平均 5萬kw<sup>(47)</sup>에 달하고 있었으나 이미 當時부터 北韓은 電力을 武器化<sup>(48)</sup>하고 있었던 까닭에 南韓이 必要로 하는 充分하고도 安定的인 電力供給을 期待할 수도 없었고 1946年初期와 1947年末頃에는 北韓으로부터의 受電量이 크게 줄어 南韓은 심각한 電力難에 봉착하게 되어 生産活動은 말할 것도 없고 日常生活까지도 큰 困蹙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 V. 맺는 말

解放後 우리 經濟가 심한 混亂에 빠져들게 된 것은 以上에서 考察하였던 것과 같이 日政下에 日本經濟와 有機的으로 統合되어 있었던 韓半島의 經濟가 日本으로부터 分離된 것과 日政下에 累積된 인플레이션壓力이 顯在化하였을 뿐만 아니라 南北의 政治的 分斷으로 南北間의 모든 經濟的 連繫가 斷切되었던 데 그 主因이 있었으나 그밖에 230萬名에 달하는 北韓 居住 住民의 南下와 海外同胞의 歸還으로 南韓人口가 激增하여 物資不足과 惡性 인플레이션

(46) 解放前 南韓의 纖維, 食料品工業은 北韓만이 아니라 滿州와 中國大陸과 같은 大量消費市場을 갖고 있었다.

(47) 北韓으로부터의 受電量은 1945年(7~12月) 平均 39,062kw로서 南韓電力供給總計(平均)의 66.7%를 占하였다. 1946年 平均受電量은 53,198kw(67.6%), 1947年 平均受電量은 61,860kw(67.1%)에 달하였다.

(48) 北韓은 1948年 5月 14日 正午를 期하여 對南送電을 斷切하였다.



이 더욱 激化된 데서도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다.

解放當時 南韓의 耕地面積은 232萬町步에 달하였고 그 76%가 穀物生産에, 10%가 豆類生産에, 6%가 野榮 및 薯類生産에 그리고 나머지가 果樹栽培에 利用되고 있었으나 解放後에는 肥料不足, 勞動力不足, 麥類生産의 忌避, 水害 등으로 米穀生産을 除外한 植付面積이 모두 減少되었을 뿐만 아니라 麥類와 雜穀生産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穀物生産은 減少되는 趨勢를 나타냈다. 즉 穀物生産(麥類除外)은 1940~44年 平均<sup>(49)</sup>에 比하여 1945년에는 約 29%, 1946년에는 約 22%, 1947년에는 約 19%가 減少되었다. 이 중 米穀生産은 1940~44年 平均<sup>(50)</sup>에 比하여 1945년에는 6.5%, 1946년에는 12.2%가 減少되었다. 또한 麥類生産은 1940~44年 平均<sup>(51)</sup>에 比하여 1945년에는 74%가 減少되고 1946~48年 期間 中에는 平均 42%가 減少되었다. 끝으로 雜穀生産<sup>(52)</sup>도 1945~47年 平均生産이 1940~44年 平均生産量의 68.3%에 지나지 않았다. 이같이 穀物生産이 全般的으로 줄어 들었던 反面에 南韓人口는 1944年 5月 1日 16,565千名(韓國人에 限함)에서 1947년에는 19,698千名<sup>(53)</sup>으로 激增하여 食糧不足을 加增시켰다. 이에 對處하여 美軍政當局은 1946年 5月~1948年 1月에 이르는 期間 中 67萬M/T에 달하는 食糧을 導入하여 食糧不足에 充當하였다.

한편 工業部門에서도 原料不足과 施設의 不備, 動力不足과 技術不足 등으로 製造業部門 全般에 걸쳐 生産이 萎縮되었다. 美軍政廳 調査에 의하면 1947年 3月 現在 5人以上 勤勞者를 雇傭하고 있었던 事業場數는 全國에 4,500개 業所로서 1943년에 比하여 55.3%가 減少되고 勤勞者數도 49.5%가 減少된 13萬4千名으로 밝혀졌다.<sup>(54)</sup> 이를 主要業種別로 보면 紡織(68.1%), 食料品(62.3%), 印刷·製本(65.9%) 등의 事業場減少率이 높았고, 印刷·製本(64%), 金屬(51.3%), 窯業·土石(48.2%) 등의 勤勞者減少率이 높았다. 또한 1946年 및 1948年 生産額을 1939年 生産額과 比較하여 實質生産額의 變化를 살펴 보면 1946年 工業生産額은 1939年 對比 實質的으로 71.2%가 減少하고 1948年 生産額은 85.8%가 減少되었던 것으로 計測되고 있다.<sup>(55)</sup> 業種別로 보면 1939~46年 期間 中에는 食料品(82.9%), 化學(76.2%), 機械器具(60.5%), 紡織工業(60.3%)의 生産萎縮이 극심하였으나 1939年과 1948

(49) 精穀으로 25,581千石으로 算出되었다(農林部 糧政局 調査).

(50) 13,718千石(精穀), 1941년에는 18,900千石(精穀)을 記錄하였다.

(51) 9,450千石(精穀), 1944년에는 11,083千石(精穀)을 生産하였다.

(52) 1,241千石(精穀), 1944년에는 1,619千石(精穀)을 生産하였다.

(53) 1949年 5月 1日 人口調査結果는 20,167千名.

(54) 美軍政廳 勞働部 調査(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p. I-203).

(55) 1939年과 1946年 比較는 1939年 價格에 의한 比較이며(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p. I-324) 1939年과 1948年 比較는 1948年價格에 의한(Kwang Suk Kim and Michael Roemer,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1979, p. 26).

年の比較에 있어서도 食料品(91%), 化學(82%), 紡織工業(82%)의 生産萎縮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sup>(56)</sup>

이같이 製造業部門 全般에 걸쳐 심한 生産萎縮現象이 생겨났던 것은 종래 日人所有였던 歸屬事業體의 生産이 日人の 退居로 一時 마비될 수 밖에 없었던 것과 南北分斷으로 인한 原料供給의 中斷, 對日依存의 脫皮로 인한 原資材·半製品供給의 杜絶, 電力不足과 北韓에 의한 電力供給中斷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美軍政下에 經濟的 混亂을 加增시킨 또 하나의 原因은 日政末期에 累積된 인플레이션要因이 解放을 契機로 顯在化되어 暴發的인 惡性 인플레이션이 進行되었던 데에도 있었다. 美軍政當局은 米穀의 收集과 配給, 價格統制(必須品の 最高價格制와 配給制), 緊急援助, 稅制改革, 歲出의 壓縮 등 多樣한 安定策을 강구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進行을 막는 데는 未洽하였다. 當時 朝鮮銀行調查部 調査에 의하면 敗戰直後인 1945年 8月末에서 同年末에 이르는 4個月間에 都賣物價가 約 2.5倍, 小賣物價가 約 2.2倍로 暴騰하였고, 1946年末에는 前年末 對比 都賣物價가 3.7倍, 小賣物價가 3.5倍로 暴騰하였다. 또 1947年末에도 前年末 對比 都賣·小賣物價가 모두 80%以上 上昇하였다. 이같이 美軍政下에서 惡性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進行되었던 것은 첫째로 生産停滯에 따른 극심한 物資不足, 둘째로 季節的 米穀收集資金의 放出과 財政赤字의 累增<sup>(57)</sup>으로 인한 通貨增發에도 그 原因이 있었으나 보다 根本的인 原因은 日政下에 形成된 經濟的 遺産과 南北分斷으로 인한 經濟基盤의 分裂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8.15解放과 南北分斷은 日政下에 形成된 跛行的인 産業構造와 從屬經濟가 가질 수 밖에 없었던 後進性과 脆弱性을 一時에 露呈시켜 美軍政期에 우리 經濟를 큰 混亂 속에 빠뜨리고 말았으나 日政下에 形成된 經濟的 遺産을 拂拭하고 南北分斷으로 인하여 우리 經濟에 課해졌던 어려운 始發條件을 克服하기까지에는 줄잡아 한 世代<sup>(58)</sup>가 所要되었다고 할 수 있다.

(56) 1939年과 1948年 比較에 있어서는 木製品工業의 生産萎縮率이 8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Kim and Roemer,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p. 26.

(57) 財政赤字는 決算基準 1945年度(1945. 10~46. 3) 996百萬圓에서 1946年度(1946. 4~47. 3)에는 7,848百萬圓, 1947年度(1947. 4~48. 3)에는 7,498百萬圓(단 1947年 12月末 現在), 1948年度(1948. 4~9)에는 3,783百萬圓으로 각각 늘어났다.

(58) Kim and Roemer,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Ch. 6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pp. 125-52 參照.